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일본어 정태부사의 의미와 용법에 관한 고찰

- 「うっかり」「つい」「思わず」를 중심으로 -



일 어 교 육 전 공

박 희 정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일본어 정태부사의 의미와 용법에 관한 고찰

- 「うっかり」「つい」「思わず」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 건 식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 어 교 육 전 공

박 희 정

박희정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8월



주 심 박 영 숙 (인)

위 원 최 건 식 (인)

위 원 손 동 주 (인)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2
2.1. 일본어 정태부사의 개념	2
2.2. 개별 어휘에 관한 선행연구	4
3. 연구방법	10
II. 본 론	11
1. 세 어휘의 의미	11
1.1. 「うっかり」의 의미	11
1.2. 「つい」의 의미	17
1.3. 「思わず」의 의미	23
2. 세 어휘의 유의관계	26
2.1. 「うっかり」와 「つい」에 대한 의미와 사용영역	27
2.2. 「うっかり」와 「思わず」에 대한 의미와 사용영역	30
2.3. 「つい」와 「思わず」에 대한 의미와 사용영역	33
2.4. 세 어휘의 공통된 사용영역	36
3. 세 어휘와 문말표현	37
III. 결 론	44
참고문헌	47

A Study on the Meaning and Usage of Status Adverb
in Japanese
- Focused on 「Ukkari」 「Tsui」 「Omowazu」 -

Hee-Jeong Park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Vocabularies of synonymic relation, recently, is suddenly increasing as the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changing its focus to the communication. Examination on actual education or learning methods of students, nevertheless, tell us that they are preferring just dictionary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problems in communication caused from above tendency. The subject of our study, among them, is the Status Adverbs which has high frequency in use but on which has not been studied relatively so much. We consider at the respect of semantics, also, the similarity and difference among the unintentional adverbs such as 「うっかり」, 「つい」, and 「思わず」 collected from the Status Adverbs.

We find, consequently, that these three vocabularies - 「うっかり」, 「つい」, 「思わず」 - have similarity of being used at the motion for which the subjective is not intended. We concluded that 「うっかり」, among them, is used in representing the regrets about careless behavior of the subject. 「うっかり」, also, implicates some reflection in case of being related to the predicate 「～た」, while it doesn't implicate any reflection in case of being related to the description of assumption.

「つい」 is used when the cause of behavior is at the <lack of

restraint>. The behavior in these case has bad image because he or she couldn't restrict something enough to being restricted. It can be said that, on the other hand, we are focusing on the external factor if we think the cause of a behavior is <external situation>. The behavior in these case has hardly bad image.

「思わず」 can be used when the behavior is from external stimulus without subjective's intention, and used even within instantaneous behavior.

Substitutions 「うっかり」 for 「つい」, 「うっかり」 for 「思わず」, occur within the sentence has obscure cause of its behavior. Both 「つい」 and 「思わず」 are used when the behavior is cause by some stimulus, but the substitution, probably, occurs when it is obscure whether the focus of subjective is internal or external.

In the third chapter, we consider the co-occurrence at the position of syntax, based on the meaning of vocabularies. 「うっかり」, 「つい」 and 「思わず」, consequently, has the similarity of co-occurrence with sentence-ending-expression containing mood of prohibition, but 「うっかり」 is the only adverb co-occurrence with the sentence-ending-expression representing mood of order or intention. For the relation with 「～てしまう」, on the other hand, 「つい」 has its highest degree of coupling with 「～てしまう」 because 「つい」 and 「～てしまう」 have common ground of representing perfect tense as well as repentance or regret.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본어는 한국어와 문구조상 유사점이 많은 언어이다. 이는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하며, 같은 계열인 교착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의 유사성과 한자의 공통성은 일본어 학습자에게 이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어휘적 측면에 있어서의 오용은 학습자가 자신의 모어를 제 2 외국어로 직역하거나 또는 모어를 제 2 외국어에 그대로 도입하는 모어차용의 형태로 나타난다. Kellerman에 의하면 학습자가 제 2 외국어와 모어를 유사하다고 여길수록 제 2 언어 사용시에 모어의 차용정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¹⁾. 이러한 모어의 차용은 의미적으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제 2 외국어 유의어 사용에 있어서 더욱 많은 수의 오용례를 낳게 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외국어 교육이 읽고 쓰는 것 보다는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모하면서 학습해야 할 어휘량이 대폭 증가했다. 그 중에는 의사소통 시 혼란을 야기하는 유의어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용어휘 간의 의미와 용법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자가 어휘 학습에 이용하고 있는 사전에는 단순한 의미와 예시만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용되고 있는 유의어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일본어 부사는 한국어 부사와 같이 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

1) 西川寿美 外, 『新 はじめての日本語教育 1 日本語教育の基礎知識』, ask, 2004, p.250에 의함.

지는 않지만 사용빈도가 높아 의사소통 시 더욱 더 주의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부사는 활용이 없으며, 문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그에 대한 연구가 동사나 형용사 등 타 품사에 대한 연구에 비해 활발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부사는 현재 山田孝雄(1936)의 부사분류를 바탕으로 해서 크게 정도부사, 정태부사, 진술부사의 세 종류로 나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²⁾. 그중에서 최근에 이뤄지고 있는 부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정도부사와, 모달리티와의 관계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진술부사 유의어에 대한 것이다. 그에 비해 정태부사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적은 편이다. 또한 그 내용이 의성어와 의태어의 의미상 또는 형태상 분류에만 치우쳐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교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정태부사, 그 중에서도 화자의 비의도적 태도를 나타내는 「うっかり」「つい」「思わず」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이들 세 어휘는 한국어로는 뜻이 비슷하여 사용에 혼동을 주는 유의어이다. 이러한 세 어휘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유의관계에 있는 세 어휘를 구별해 사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학습자들의 일본어 부사 학습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일본어 정태부사의 개념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うっかり」「つい」「思わず」는 공통적으로 정태부사라는 카테고리에 속한다. 각 어휘의 개별적 연구와 직접적 관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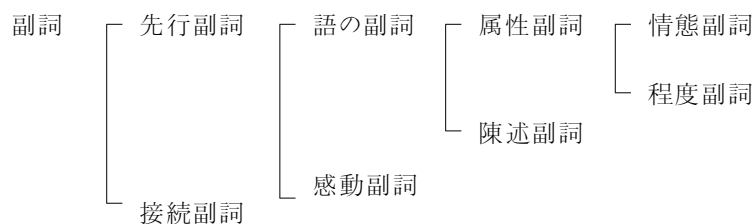
2) 畠郁, 「副詞論の系譜」, (『副詞の意味と用法』(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19), 国立国語研究所, 1995, p.5에 의함)

맺고 있지는 않지만 본론에서 각 어휘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도출해내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태부사의 정의와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부사란 『新版日本語教育事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副詞は語形変化をしない品詞である。多くの場合、文の命題内容の動きや変化を修飾する様態副詞と命題内容の状態性の概念を修飾する程度副詞、文頭に位置したり文のモダリティーを補強したり予告したりする陳述副詞の3つに分類される³⁾。

이처럼 부사가 크게 셋으로 분류된 것은 山田孝雄(1936)의 부사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우선語의 의미가 뒤따르는 어구와만 관계를 맺는 것을 先行副詞라고 하고, 그보다 앞에 나타나는 어구와 뒤따르는 어구를 의미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接統副詞라고 하였다. 先行副詞는 어떤語에 선행하는語의副詞와 어떤 문구에 선행하는 感動副詞로 나뉜다.語에 선행하는 부사는 크게 나누어 属性副詞와 진술을 나타내는 陳述副詞로 나뉜다. 그리고 属性副詞는 그 자신이 어떠한 속성이나 관념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様態副詞와 의미로써 단순히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로지 다른 속성을 나타내는 程度副詞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부사의 분류를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⁴⁾.



3) 日本語教育学会 編, 『新版日本語教育事典』, 大修館書店, 2005, p.70(小矢野哲夫의 집필에 의함)

4) 畠郁, 「副詞論の系譜」, (『副詞の意味と用法』(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19), 国立国語研究

그리고 山田는 그 중에서 특히 정태부사를 다음과 같은 어군으로 분류했다. 「静か、はるか、あでやか、なめらか、あたたか、ほのか」등과 같이 조사「に」를 동반하는 부사와, 「ひらひら、さっ、はっし、漠然」등과 같이 「と」를 동반하는 부사, 그리고 「に」와 「と」를 동반하지 않는 부사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정태부사의 속성을

- ・ 用言の属性を装定する。
- ・ 助詞「と」「に」を伴ひて用言の属性を装定する。稀に「の」を伴ひて装定する。
- ・ 事物の属性をあらわすものにして、その觀念のみをいはば形容詞に似たものなり。

라고 의미상으로 기술하고 있다⁵⁾.

2.2. 개별 어휘에 관한 선행연구

우선, 유의어 파악의 기초 작업으로써 사전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사 「うっかり」「つい」「思わず」는 모두 한국어로 「무심코」「깜빡」「그만」등으로 해석되어 일한사전 상으로는 그 셋의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좀 더 자세한 의미파악을 위해 이 세 어휘가 『大辞林』⁶⁾ 『広辞苑』⁷⁾ 두 사전 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所, 1995, p.8에 의함)

5) 山田孝雄, 「副詞」, (『日本の言語学』 (第4卷文法Ⅱ), 大修館書店, 1979, pp.283~302에 의함)

6) 松村明, 『大辞林』 第2版, 三省堂, 1995

7) 新村出, 『広辞苑』 第5版, 岩波書店, 1998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大辞林	広辞苑
うっかり	① ぼんやりして注意が行き届かないさま。 ② 心をひかれて他に注意の向かないさま。うっとり。	① 気抜してぼんやりしたさま。物事に気づかず、不注意であるさま。
つい	① そのつもりがないのにしてしまうさま。うっかり。思わず知らず。 ② そのつもりがあるのに、そのままなっているさま。 ③ 時間・距離などがごくわずかであるさま。ほんの。すぐ。	① はからず。思わず。 ② すぐに。じきに。 ③ 動作のすばやささま。
思わず	① 思いのほか。意外。案外。 ② 心外である。期待がはずれて気に入らない。	① 心外であるさま。 ② 意外であるさま。 ③ そうしようと思ったわけではないのに。無意識に。

이렇듯 두 사전 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각 어휘 간에 약간의 차이점도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일치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つい」의 의미를 기술함에 있어서 『大辞林』에서는 「うっかり」의 의미로, 『広辞苑』에서는 「思わず」의 의미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사전만으로는 유의어간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現代擬音語擬態語用法辞典』⁸⁾에 의하면 「うっかり」는 행동을 할 때 정신적으로 산만한 모습을 나타내는 마이너스의 이미지를 띤 어휘라고 서술되어 있다. 한편 『現代副詞用法辞典』⁹⁾에 의하면 「つい」는 의도하지 않

8) 飛田良文・浅田秀子, 『現代擬音語擬態語用法辞典』, 東京堂出版, 2004, p.13

9) 飛田良文・浅田秀子, 『現代副詞用法辞典』, 東京堂出版, 2004, p.110, p.294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비의도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억제력 결여의 결과 습관적이고 본능적인 행위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나, 당연히 해야 할 적절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반성을 암시하는 어휘로써 사용된다고도 말하고 있다. 「つい」의 두 번째 의미는 시간이나 거리가 상당히 짧음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思わず」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며, 본능적이고 충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덧붙여 일회적인 행동에 쓰인다고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위의 설명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言葉の意味3』¹⁰⁾에 의하면 세 어휘의 공통점은 <의지로 억제할 수 있는 행위>를 <의도하지 않고> 행한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문법적인 상이점에 대해 살펴보면, 「つい」 또는 「思わず」와 달리 「うっかり」는 「する」가 붙는 동사적 용법과, 「うっかり者」와 같은 복합어의 형태로도 쓰일 수 있으며, 그리고 조건문에서도 쓰일 수 있다. 그리고 「つい」는 두 번 겹쳐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두 어휘는 겹쳐서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미적으로는 「うっかり」와 「つい」, 「つい」와 「思わず」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상이점을 살펴보고 있다. 「うっかり」와 「つい」의 비교에서 「うっかり」가 <주의력 부족>을 원인으로, 「つい」가 <억제력 부족>을 원인으로 해서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한다는 것은 『現代副詞用法辞典』과 『現代擬声語擬態語用法事典』에서의 의견과 일치하는데, 이에 덧붙여 「つい」의 경우 억제력 결여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적 동인이 그것을 억제하는 힘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결과의 예측이 가능할 경우에는 「つい」를, 그렇지 않을 때는 「うっかり」를 쓴다는 상이점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つい」와 「思わず」에 대해서도

10) 国広哲弥 外, 『言葉の意味3』, 平凡社選書, 1997, pp.195~202

다른 선행연구와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지만, 두 어휘가 <실현이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것>에는 쓰일 수 없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言葉の意味3』에서는 단순히 세 어휘에 대해서 비교연구를 하고 있을 뿐 치환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うっかり」와 「思わず」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仁田義雄(2002)¹¹⁾는 정태부사를 「動き様態の副詞、評価的な捉え方をした動き様態の副詞、主体状態の副詞、節的存在の様態の副詞」로 분류하고, 각 부사군의 주변에 위치하는 수식성분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 중 본고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主体状態の副詞」는 움직임을 실현하거나 전개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주체의 상태를 통해 사태 성립을 한정하는 부사로 정의하고 있다. 仁田는 또한 이러한 「主体状態の副詞」를 <주체의 의도성>과 관련되는 것, <주체의 심적 상태>와 관련되는 것, 그리고 <주체의 부대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うっかり」「つい」「思わず」는 모두 <주체의 의도성>과 관련된 것 중 <비의도적인 것>에 속한다. 그는 「うっかり」에 대해서 의지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몇몇 예시를 소개하고 있다. 「つい」에 대해서는 의지가 관여하지 않고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한편 「思わず」는 사태의 출현이나 성립에 대해 주체가 무의식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어휘를 포함한 그 외의 주체의 비의도성을 지닌 부사 전반에 걸쳐 간단한 설명이 이루어져있을 뿐이며, 「うっかり」「つい」「思わず」 세 어휘에 대한 자세한 예시나 논거는 부족하다. 특히 각 어휘간의 유의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김소영(2002)¹²⁾은 <행동과 시간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思わず」

11) 仁田義雄, 『副詞的表現の諸相』, くろしお出版, 2002

와 「つい」의 유사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자극과 반응간의 시간의 길이를 파악하기 애매한 문에서 「思わず」와 「つい」의 사용에 치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외에 자극의 강도를 알기 어려운 문에서도 두 어휘의 사용에 치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자극의 강도가 강할 경우에는 반응까지의 시간이 짧으므로 「思わず」가, 자극의 강도가 약할 때는 반응까지의 시간이 길므로 「つい」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うっかり」와 「つい」는 주의력의 부족 또는 억제력의 부족 중 행동의 원인이 어느 쪽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 치환이 일어나고, 「思わず」와 「うっかり」는 둘 다 무의식적인 행위를 나타낸다고 하는 의미상의 유사성 때문에 치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てしまう」의 경우는 「うっかり」「つい」「思わず」세 어휘와 모두 결합이 가능하지만, 그 결합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각 어휘는 일차적으로 동사까지만 관여하고, 2차적으로 <各語+동사>전체가 「～てしまう」와 결합함으로써 화자가 <各語+동사>전체를 마이너스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결합하는데 있어서 부사의 의미적 특징에 따라 결합도가 좌우되는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이들 세 어휘의 의지동사와의 결합도, 동작 동사와의 결합도를 조사하고, 이외에 원망문과 조건문, 그리고 금지문에서의 각 어휘의 출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李沢態(2003)¹³⁾는 「うっかり」「つい」「思わず」에 관한 선행연구로써 国広哲弥의 이론을 들고 있다. 그는 많은 면에서 国広哲弥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선 李沢態는 「思わず」와

12) 김소영, 「つい、うっかり、思わず의 용법에 관한 고찰」,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3) 李沢態, 「主体の意図にかかわる副詞(的機能を持つ表現)の意味研究」, 名古屋大学大学院国際文化研究科博士学位論文, 2003

「つい」의 의미상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思わず」가 <화자에 의해서 주체가 어떠한 자극을 원인으로 해서 예상외의 순간적이고 조건반사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대해, 「つい」는 <화자에 의해 주체가 주어진 상황에 영향을 받아 억제력이 결여되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国広哲弥의 의견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두 어휘의 상이점에 대해서는 <행동과 시간의 관계>의 장단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思わず」는 자극을 받아서 행동하기까지의 시간이 짧은 것이 보통이지만 「つい」는 그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李沢態는 치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자극과 반응의 시간관계>가 불확실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李沢態는 「思わず」와 「つい」가 사용되는 문에 자주 나타나는 「～てしまう」의 관계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다. 「～てしまう」는 「思わず」와 공기할 때는 <화자가 사태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는> 의미이며, 「つい」와 공기할 때에는 <화자가 사태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설명한다.

「つい」와 「うっかり」의 의미상의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李沢態는 두 어휘가 비의도적이고, 주체가 행한 행위는 의식적인 행위이며, 주체의 행위나 상태에 대해서 마이너스 평가를 내리는 표현이라는 유사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두 어휘의 상이점에 대해서는 「つい」가 <억제력 결여>가 원인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 쓰인다면, 「うっかり」는 <주의력결여>가 원인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 쓰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思わず」와 「つい」, 「つい」와 「うっかり」, 각각의 의미상 유사점과 상이점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으면서 「思わず」와 「うっかり」에 대한 설명은 없어 세 어휘의 종합적인 유사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각각의 의견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에서 공통된 의견을 추출해 낼 수 있지만, 「つい」와 「思わず」의 유의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상이점을 구별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각각의 어휘와 「～てしまう」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적고, 연구결과에서도 약간의 이견이 발견된다. 또한 「うっかり」와 「思わず」의 유의관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미진했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うっかり」「つい」「思わず」세 어휘의 유의관계와 각 어휘의 사용 시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앞서 선행연구로써 기존의 부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태부사의 개념과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세 어휘의 전반적인 특징에 관한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의어 연구를 위해서는 각각 어휘의 의미를 더욱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첫째, 「うっかり」「つい」「思わず」세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 문을 추출하고, 선행연구와 대비하여 각 어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그를 바탕으로 세 어휘의 유의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과정에서는 각 어휘간의 치환가능 여부와 치환이 일어나는 환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てしまう」문이나 이 외의 모달리티와 관련지어 여러 문말 표현에서 각각의 어휘가 갖는 의미의 상이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Ⅱ. 본 론

김소영(2002)¹⁴⁾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うっかり」는 <그 동작에 대한 주체의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つい」는 <의식과는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조건반사적으로 해버리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思わず」는 <습관적인 강한 충동 또는 충격에 의해 무엇도 생각하지 않은 채 어떠한 행위를 해버리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에는 여전히 미비한 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세 어휘의 유의관계를 좀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각각 어휘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세 어휘의 의미

1.1. 「うっかり」의 의미

「うっかり」의 의미는 형식상의 분류와 통어적 의미기능의 분류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형식상으로 분류해 보면, 「うっかり」는 「うっかり」「うっかりと」와 같은 부사적 형식과 「うっかりする」와 같은 동사적 형식, 그리고 「うっかり者」나 「うっかりミス」와 같이 복합명사의 형식으로 나뉜다. 다음의 세 예문은 「うっかり」가 부사적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이다.

14) 김소영, 「つい、うっかり、思わず의 용법에 관한 고찰」,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p.44~45

- (1)隣のクラスのA君は、担任の先生に向かってうっかり「店長」と呼んでしまい、無断アルバイトがばれてしまった。(朝日新聞 99年)
- (2)今回、税関で起ったトラブルの一つだ。うっかり仕事用ビザで観光ツアーに入った私は、入国で足どめをくらった。(朝日新聞 99年)
- (3)此の稀の虫干しの日に、遂に私は粗相をしました。うっかり何かにぶつけて、父の大切にしている赤い絵模様の水差しを折って了ったのでした。その時胸はドキドキと鳴り私はすぐには許しも乞えませんでした。でも『もう済んで了ったことだ、これからは気をつけなさい』と父は気をとりなおして云ってくれました。(鷹野つぎ『虫干し』)

예문(1)에서의 「うっかり」는 「呼んでしまい」라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입 밖에 내고 말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때 「うっかり」의 의미는 이미 벌어진 행동이 부주의에 의해 일어났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2)에서도 나는 관광을 하러 올 때에는 관광비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실수로 업무용 비자로 관광을 오게 된 경우이다. 한편 예문(3)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아버지가 아끼는 그릇의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만다. 이러한 행동을 한 이후에 「胸はドキドキと鳴り私はすぐには許しも乞えませんでした」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예문들은 모두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문장들이다.

다음으로 「うっかり」가 「うっかりする」라는 동사적 형식으로 쓰인 경우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今の自民党はうっかりすると古い派閥体質へ里帰りする恐れがある。河野の政治感覚が必要になることがありうる。(朝日新聞 99年)

(5)うっかりしている間に、馬が道端の畑を荒した。(朝日新聞 99年)

(6)そうしてうた子を見ると、

「やあ、うた子か。お父さんはうっかりして悪い事をした。お前の大切な水仙を二つとも鋤で半分に切ってしまったから、裏の草原へ棄ててしまった。勘弁してくれ。その代り、今度水仙の花が咲く頃になったら、大きな支那水仙を買ってやるから」とおあやまりになりました。(夢野久作『青水仙、赤水仙』)

예문(4)에서 「古い派閥体質へ里帰りする」라는 상황은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여 정신을 놓고 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문(5)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이에 말이 밭을 어지럽혀 놓은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예문(6)에서 화자는 자신이 아이가 소중히 여기는 수선화를 실수로 베어버린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예문은 「うっかり」에 「する」가 접속하여 마치 하나의 동사와 같이 쓰이고 있는 경우이다. 물론 앞서 살펴본 「うっかり」가 부사적 형식으로 쓰였을 때와 형식적으로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지만, 앞으로 벌어질 행동이나 이미 발생한 사태가 모두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에 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명사적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うっかり」는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행동이 일어난 경우에 사용된다.

(7)組織委では、「うっかりミスで事前申告をしなかった。著作権協会からの請求に応じたい」と非を認めている。(朝日新聞 99年)

(8)調査に当たった警察官のうっかりミスで後に訴因変更をようすることになり、公判が

長期化し、関係者に多大な迷惑をかけたことを十分に反省してほしい」とつけくわえた。(朝日新聞 99年)

- (9) 「おい、庄太。おれもぼんやりだが、おめえもよっぽどうっかり者だぜ。例の一件の中年増はおめえの縄張り内の浅草で、しかも眼のさきの吾妻橋に住んでいたのじゃあねえか」(岡本綺堂『半七捕物帳 大森の鶏』)

지금까지 「うっかり」를 형식적으로 분류해보았을 때, 전체 164개의 예문에서 부사적 형식으로 사용된 경우는 75.6%(124개 예문), 동사적 형식으로 사용된 경우는 13.4%(22개 예문), 명사적 형식으로 사용된 경우는 10.98%(18개 예문)로 조사되었다¹⁵⁾. 이처럼 형식적으로 여러 갈래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는 것은 「つい」나 「思わず」와는 다른 「うっかり」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의미 및 통어적 기능면에서 구별하면, 「うっかり」는 걸리는 술어의 형태에 따라 「～た」에 걸려서 부주의로 행동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법과, 가정형의 술어에 걸려서 부주의로 그것을 할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류된다. 공기하는語의 의미내용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예이다.

- (10) ヤマガラは脂肪が富むこの種が好物で、くわえて飛び去っては中身をつつきま
す。でもたまに、ぼとつ。うっかり落とした種から新しい命が芽生えます。(朝日新聞 99年)

- (11) 暮れに、小学校五年の孫が近くの友だちに出した年賀状のうち、住所は正しかったのに、番地をうっかり自宅の番地にしてしまったのが二通あったのです。(朝

15) 필자의 조사에 의함. 조사는 『靑空文庫(<http://www.aozora.gr.jp>)』와 『CD HIASK 1999(朝日新聞記事データベース)』를 바탕으로 하였다. 후술의 「つい」「思わず」의 조사도 마찬가지이다.

日新聞 99年)

(12)終戦直後はみんなが生ける屍のように虚脱状態にあったので、ほんとうにうっかり処分されてしまったのかも知れなかった。とにかく今もその謎は解けないままに残されている。(海野十三『骸骨館』)

예문(10)과 예문(11), 예문 (12)는 모두 「うっかり」가 「～た」에 걸리는 경우이다. 예문(10)에서 「うっかり」는 언뜻 문말의 「芽生える」라는 동사에 걸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落とした」라는 동사에 걸려있다. 예문(10)은 곤줄박이가 씨앗을 물고 날아가다 실수로 떨어뜨린 씨앗으로부터 새로운 싹이 튼다는 내용이다. 문말에 「芽生える」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동사가 쓰이고 있지만 곤줄박이 입장에서 씨앗을 떨어뜨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예문(11)에서 「うっかり」는 「～してしまった」에 걸려 실수로 번지를 잘못 쓴 것에 대한 유감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예문(12)는 전후에 허탈한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즉 문말의 「～た」는 화자의 사건에 대한 후회나 유감스러움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現代擬音語擬態語用法辞典』에서는 「うっかり」를 사용할 경우 행동에 대한 주체의 반성이 암시된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에서는 「うっかり」가 반성을 암시하는 의미기능을 갖는다.

(13)定吉は少しゆき詰まった。かれは自分の冤罪を叫ぶために、飛んでもない事をうっかり口走ってしまったので、今さら後悔しても追っ付かなかった。かれは半七にその尻っぽを捉まえられて、とうとう恐れ入って白状した。(岡本綺堂『半七捕物帳 人形使い』)

(14)大阪府立千里救命救急センターの太田宗夫所長は二十四日午後五時から記

者会見し、臓器移植法にもとづく一回目の脳死判定時に脳波測定之感度が低く設定されていたミスについて、「測定に当たった技師がうっかりボタンを押し間違えた。反省している」と解明した。(朝日新聞 99年)

예문(13)의 경우 定吉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을 해버린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우 「うっかり」는 반성을 암시하는 경우에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시(14)에서는 뇌사 판정의 감도를 낮게 설정해 놓았던 실수에 대해, 내용상으로도 「反省している」라는 부분이 언급되어있어 반성의 의미가 충분히 암시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는 「うっかり」가 반성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15)イネやすすきの葉は堅くて、うっかりすると手を切ったりするわね。(朝日新聞 99年)

(16)このレム睡眠は昼間電車の中でウトウトしているときに起るので、うっかりすると勃起が起る。(朝日新聞 99年)

(17)さあ、そうなってみると、その友達は途方に暮れてしまいました。なぜといってもしそんなことをうっかり兄さんに打ち明けようものなら、兄さんは失望のあまり、人生を呪って必ずや我身を亡ぼしてしまうに違いないと思ったからです。(渡辺温『恋』)

예문(15)은 벼나 억새의 날카로운 잎에 부주의로 손을 베이는 경우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손을 베이거나 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경우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반성을 암시한다고는 할 수 없다. 손을 베이는 것은 아직 발

생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문(16)에서도 전차에서 잠을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성을 암시하는 문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예문(17)은 「うっかり」가 가정형의 술어인 「～なら」에 걸려 있다. 예문(17)에서 친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은 형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을 경우 형이 실망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뿐으로, 반성을 하고 있지는 않다. 세 예문에서 아직 행동이 실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うっかり」는 반성을 암시한다기 보다는 부주의로 인해 일어날 일에 대해 경각심을 환기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리하면 「うっかり」는 반성을 암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런데 「うっかり」가 술어가 「～た」에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반성을 암시하는 경우에 사용되고, 가정형의 술어에 걸리는 경우는 반성을 암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휘의 의미기능을 살필 때에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어적 기능면에서도 고찰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의 3장에서는 「うっかり」와 「～てしまう」와의 공기관계에 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예문을 통해 「うっかり」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형식적으로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더라도 「うっかり」는 주체의 부주의에 의해 행동이 발생하고, 그 행동으로 인해 유감스러움을 느낄 때 쓰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반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는 「うっかり」가 걸리는 술어의 형태와 함께 고려하여 생각해보아야 한다. 즉 「うっかり」가 「～た」에 걸리는 경우 「うっかり」는 반성을 암시하지만 가정형의 서술에 걸리는 경우는 반성을 암시하지 않는다.

1.2. 「つい」의 의미

정태부사 「つい」는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된다. 첫 번째는 무의식중에 한 행동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시간이나 거리가 상당히 짧은 것을 강조하는 경우이다.

우선, 전자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 李沢態(2003)는 「つい」가 <화자에게 있어 주체가 주어진 상황에 영향을 받아 억제력의 결여를 원인으로 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취하는> 경우에 쓰인다고 하였다. 여기서 억제력 결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억제력이란 어떠한 행동에 대해 억누르고자 하는 의식을 말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바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억제력 결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예문의 경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행동이 일어난 원인이 반드시 주체의 억제력 부족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18)谷中から駒込までぶらぶら歩いて帰る道すがら、八百屋の店先の果物や野菜などの美しい色が今日はいつもよりは特別に眼についた。骨董屋の店先にある陶器の光沢にもつい心を引かれて足をとめた。(寺田寅彦『ある日の経験』)

(19)これはどちらが正当だか私には分らない、とにかくその時は全く恥じ入って、つい無意識にあやまってしまった訳である。(寺田寅彦『ある日の経験』)

예문(18)의 경우 행동의 주체는 골동품 가게 앞의 도자기 빛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끌려 발을 멈추게 된다. 멈추게 된 것을 억제력의 결여라고 보는 것 보다는 도자기의 빛깔이 하나의 외부상황으로써 행동 주체에게 자극을 주어 자신도 모르게 행동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예문(19)의 경우 부끄러운 마음에 조건반사적으로 사과해버리는 경우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또한 반드시 억제해야 할 바람직하지 않은 행

동이라고 보기에겐 무리가 있다. 이는 벌어질 행동이 꼭 억제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행동의 원인을 억제력의 결여보다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리가 된다. 본고는 그 원인을 주체가 접하고 있는 외부의 상황에 있다고 본다. 李沢態의 경우는 주어진 상황, 즉 외부 상황의 영향을 받아 억제력을 상실한 경우에 발생한 행동에 「つい」가 사용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의 예문을 살펴본 바, 외부의 상황이 하나의 자극이 되거나,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둘 중의 하나의 조건만이 충족되어도 「つ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위의 예문(18)과 예문(19)는 그 중 억제력 결여와는 관계없이 외부의 상황에 초점을 두어 「つい」를 사용한 경우이다.

또한 「つい」의 경우, 『現代副詞用法辞典』에 의하면, 마이너스 이미지를 띠는 경우에 사용한다고 하였다. 마이너스 이미지에 대해서 『現代副詞用法辞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具体的には当核の「意味の肉」に賞賛・希望・快感・適合・調和・尊敬・謙遜・感動など好ましい心理を多く含むものを「プラスイメージの語」、侮蔑・怒り・不満・不遜・慨嘆・あきれ・嫌悪・不快・危惧・悔恨など好ましい心理を多く含むものを「マイナスイメージの語」とし、語自体が評価に対して中立なものや、好ましい心理と好ましくない心理を同時に含むものを「プラスマイナスイメージはない」として、その間にそれぞれ二段階をもうけた¹⁶⁾。

그러나 「つい」가 마이너스 이미지를 띠지 않는 경우도 있다.

(20)さらに「文字は音声化せず、目と頭で読みましょう」。黙読するつもりでも、口

16) 飛田良文・浅田秀子, 『現代副詞用法辞典』, 東京堂出版, 2004, 凡例

の中や唇を動かして音読に近い状態になっている人が少ないという。そういえば私も、よみが特殊な熟語はつい口の中で読み方を確認してしまう癖がある。(朝日新聞 99年)

(21)すると、ちょうどおひるごろでした。雪のように白いきれいな鳥が、一本の木の枝にとまって、とてもいい声でうたっていました。あまりいい声なので、ふたりはつい立ちどまって、うっとり聞いていました。(グリム兄弟『ヘンゼルとグレーテル』楠山正雄訳)

예문(20)의 경우 행동의 주체는 자신이 읽는 법을 확인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를 내면서 읽는 법을 확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음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음독을 한다는 것이 마이너스 이미지를 띠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예문(21)의 경우는 더욱 더 마이너스 이미지를 띠고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つい」의 앞에 들려오는 노래 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다는 긍정적인 문장이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예문에서 보이는 「口の中で読み方を確認してしまう」하거나 좋은 노래 소리에 이끌려 「立ちどまる」라는 행동은 오히려 플러스의 이미지를 띠고 있다고도 할 수도 있다. 즉 李沢態가 주장한 것과 같이 「つい」가 <화자에게 있어 주체가 주어진 상황에 영향을 받아 억제력의 결여를 원인으로 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취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의견은 위의 예문에 의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편, 『現代副詞用法辞典』는 「つい」를 습관적인 경우에 쓴다고 하였다. 즉, 주어진 상황에 대해 조건반사적으로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일어난 행동은 습관적이고 본능적이라고 할 수 없다.

(22)取り込んだ洗濯物が畳まれずに押し入れに突っ込んであったりするので、周りの

者がつい言葉をあららげてしまうと、「あんたも年になったら分かる」と言ったという。(朝日新聞 99年)

(23)きょうは、どうにも僕の留守の間の事が心配になって、つい言い出してしまったのだが、こうなれば、いっそ全部お前に言って置いたほうがよいかも知れない。(坂口安吾『我が人生観』)

예문(22)에서 세탁물이 서랍장에 정리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놓여져 있는 것을 보고 주위 사람이 말을 거칠게 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 주체가 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응을 한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행동 주체가 서랍이 정리되어있지 않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말을 거칠게 한다고 전개 시킬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즉 습관적인 행동에 「つい」가 쓰이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예문에서는 정리가 되지 않은 서랍장을 본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문(23)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말을 꺼낸 것은 행동 주체가 심리적으로 불안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동 주체의 행동을 불안할 때마다 불만을 터뜨린다는 습관적인 행동으로 확대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즉, 두 예문 모두 주체의 행동을 외부의 자극에 대응하는 습관적인 작용이라고 보기보다는 단순히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つ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つい」를 사용하는 경우 벌어진 행동의 원인을 「억제력의 결여」와 「외부의 환경」중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어 보는가이다. 李沢態(2003)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충족될 경우에만 「つい」가 쓰인다고 하였으나 본고에서 조사해본바, 위에서 예문으로도 제시했듯이 한쪽만의 조건만이 충족되어도 「つい」가 사용되는 예문이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하면, 행동의 원인을 <억제력의

결여>라고 보는 것은 행동주체의 내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외부의 환경>이라고 보는 것은 주체의 외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외부적 환경에 의한 행동은 반드시 마이너스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후에 3장에서 논하겠지만 이러한 관점의 다양성 때문에 유의어간의 혼란이 야기된다.

「つい」가 지니는 두 번째 의미는 시간이나 거리가 상당히 짧다는 것이다.

(24) つい五年ほど前も、ポスコが倒産した北九州市の鋼材会社の工場を買収して、新会社を設立した際、新会社に出資しようとした系列社に、「待った」をかけたほどだ。(朝日新聞 99年)

(25) つい一ヶ月半前、法務省内の集まりで米国の貿易政策を批判し、憲法改正にまで言及した人物である。(朝日新聞 99年)

(26)とにかく入社してもしばらくの間は顔を合わせずにいた。しかも長谷川君の家は西片町で、余も当時は同じ阿部の屋敷内に住んでいたのだから、住居から云えばつい鼻の先である。(夏目漱石『長谷川君と余』)

예문(24)에서 5년이라는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화자에게 있어서 짧다고 간주되는 시간이다. 예문(25)에서도 화자는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을 짧은 기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때의 「つい」는 화자의 비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아니므로 「무심코」나 「깜빡」이 아니라 <동안을 두지 않고 곧장>이라는 의미의 「바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예문(26)은 시간적인 의미로써가 아니라 <거리가 아주 가까움>이라는 의미의 「바로」라고 해석할 수 있다.

李沢態(2003)는 이러한 의미의 「つい」가, 앞서 언급한 「つい」의 <화

자에게 있어 주체가 주어진 상황에 영향을 받아 억제력의 결여를 원인으로 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취하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의미로부터 확장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화자에 의해 주체가 주어진 상황에 영향을 받아 억제력의 결여를 원인으로 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 쓰이는 의미와, <화자에 의해 시간이나 거리가 상당히 짧은> 경우에 쓰이는 의미 사이에는 <어떠한 사건에 대해 거의 지각할 수 없는 화자의 상태>라는 스키마를 추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つい」를 의미적으로 분류해보았을 때, 전체 1304개의 예문 중에서 비의도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는 28.1%(367개 예문), 시간이나 거리가 지극히 짧은 것을 나타내는 경우는 71.9%(997개 예문)로 조사되었다. 물론, 두 가지의 의미는 화자의 지각상태에서 벗어난 경우라는 공통된 스키마로부터 시작하고 있지만, 두 번째 의미의 경우 사용영역이 시간이나 거리에 한정되어 있고 화자의 비의도와는 거리를 두고 있으므로 본고의 유의어 파악을 위한 고찰 과정에서는 두 번째 의미의 경우는 제외하고자 한다.

1.3. 「思わず」의 의미

「思わず」의 의미에 대해서는 위의 두 어휘보다 많은 부분에서 선행연구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것은 「思わず」가 <화자에 의해 주체가 어떠한 자극이 원인이 되어 (예상외의) 순간적, 조건반사적 행동을 취한 경우>라는 것이다.

(27) 一方で日本語の「なつかしい」にあたる単語がドイツ語にはない。旧知と会った

17) 李沢態, 「主体の意図にかかわる副詞(的機能を持つ表現)の意味研究」, 名古屋大学大学院国際文化研究科博士学位論文, 2003, p.103

り、故郷を久しぶりに訪れたりしたとき、日本語の上手なドイツ人なら、わあ、なつかしい、と思わず日本語が口をついて出たりする。(朝日新聞 99年)

(28)彼らも伝統に即してグレゴリア聖歌のミサ「天使」から歌い始める。この千年余りの歴史を刻む崇高な単声楽に思わず襟を正す。(朝日新聞 99年)

(29)その場所は細長い腰掛で幅はわたしの上腿の四分の三くらい狭く、高さは下腿の三分の二よりも高い。まるで拷問の道具に好く似ているので、わたしは思わずぞっとして退いた。(魯迅『村芝居』井上紅梅訳)

예문(27)은 독일어에 없는 「그립다」라는 단어를 옛 지인을 만나거나 고향에 가거나, 또는 일본어를 잘하는 독일인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なつかしい」라고 말하게 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자극이 되는 것은 일본어를 접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는 상황이다. 예문(28)을 보면 성스럽고 숭고한 음악이 자극이 되어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는 내용이다. 모두다 자극을 받아 벌어진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예문(29)에서 행동의 주체가 몰려서는 이유는 고문도구와 닮은 긴 의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고문도구라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물건이 아니므로 행동의 주체에게 어느 정도의 자극을 주는 물건이라고 볼 수 있다.

김소영(2002)은 이때 <자극>이라는 것이 앞서 「つい」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서 언급한 <외적인 상황>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이 외부상황이라는 것은 자극보다는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힘이 약하므로 행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주체의 억제력과 관련된 판단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적인 상황과 자극과의 관계를 일방적인 포함관계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외적인 상황자체가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에서는 「思わず」가 일회적인 경우에 쓰인다고 하였지만 다음

의 예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30)その熱い心情にあふれる度に、涙が思わずほおを伝わる。(朝日新聞 99年)

(31)心が暖めるような作品にあうと、思わず口ずさんでいる。(朝日新聞 99年)

예문(30)은 뜨거운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예문에서 「～度に」라는 어휘 자체는 일회적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31)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と」라는 접속조사는 항상적 속성이나 반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작품을 만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흥얼거리게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일회적인 경우에 사용된다기 보다는 자극에 의해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극은 외부의 것이 대부분이며, 행동주체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심리상태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32)稲妻が走り、雷が響くと、思わず耳に手をやります。(朝日新聞 99年)

(33)気になるのは天気である。はるばるやってきても、肝心なときに太陽が雲に隠れたのではなににもならない。果たしてというか、当日十一日の未明は思わず目がさめるほどの激しい雷雨だった。(朝日新聞 99年)

(34)うっとりするような瞬間が過ぎる。やっとレンズが合い、絵がはっきり見えだす。そこには雪のなかに一人の死んだ支那兵が倒れている。子供はその凄惨な光景に思わず目を掩ってしまう。(堀辰雄『恢復期』)

(35)船長はあごひげを撫でながらいったのであった。私がそんな事を思っている時、耳のそばで『愉快だね。』とセエキスピアが言った。…(中略)…そう言った時、機体が急にぐっと右へ傾いた。私は思わずバンドにすがりつきながら言っ

た。(沖野岩三郎『アラメダより』)

위의 네 예문과 같이 행동의 주체는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思わず」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주체의 의도 없이 행동이 이루어진 경우에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思わず」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의도적으로 일어난 행동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하는 이미지가 아닌 중립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思わず」가 포함된 예문은 모두 778개 예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세 어휘의 유의관계

「うっかり」「つい」「思わず」이 세 어휘는 위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주체의 비의도적 행위를 나타내는 유의어이다. 이러한 유의어에 대해 인지언어학자들은 하나의 언어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한 의미 또는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으며, 유의표현은 의미가 유사함과 동시에 어떠한 상이점을 갖는다고 한다¹⁸⁾.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각 어휘 간에도 유의점과 상이점이 반드시 존재하리라 여겨진다. 앞서 의미를 살펴보면 유의점에 대해 알 수 있었으므로 본장에서는 상이점에 주안점을 두어 상호 비교해보고자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치환가능성 여부를 살펴볼 때 「うっかりする」「うっかり者」등과 같은 동사적 형식이나 명사적 형식을 부사적 형식의 「うっかり」와 같이 취급하여, 나머지 두 어휘와 치환할 수 있는가이다. 그런데 치환관계를 따질 때에는 형식적으로 동일한 조건이 주어져야하므로 이하 치환관계를 고찰할 때에 「うっかり」는 부사적 형식으로만 한정하여 나머지 두 어

18) 榎山洋介, 「文の意味と語の意味」 『日本語学』 5月号, 明治書院, 2005, p.45

회와 치환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2.1. 「うっかり」와 「つい」에 대한 의미와 사용영역

앞장에서 각 어휘의 의미를 살펴보았듯이, 「うっかり」와 「つい」는 행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달리하고 있다. 「うっかり」는 주체의 부주의에 의해 행동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 사용된다. 그러나 「つい」는 주체의 억제력 결여, 또는 외부의 상황에 의해 행동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또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입장도 다르다. 「うっかり」는 발생한 행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지만, 「つい」는 반드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고는 볼 수 없다.

우선 그 상이점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うっかり」를 「つい」로 치환할 수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6) 昨年購入したばかりの眼鏡をうっかり(×つい) 踏み付けて、ツルがブラブラ垂れるほど、ひどく壊してしまったのです。(朝日新聞 99年)

(37) 「なんだって、面白い大きな山が、竜宮にあるのかい。」

「あるとも、あるとも。さあ、わたしの背中に乗りなさい。」

猿はうっかり(×つい)だまされて、亀の背中に乗り、竜宮見物に出かけました。

(豊島与志雄『竜宮』)

(38) うっかり(×つい) 風をひいてしまい、熱が出してしまったら、回復を早めるためにビタミンB1を積極的にとるようにします。(朝日新聞 99年)

예문(36)의 경우 안경의 테가 흔들흔들 거리게 된 것은 실수로 안경을 밟아버렸기 때문이다. 이 예문에서 「つい」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つ

い」가 억제해야 할 행동 또는 외부의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행동에 대해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예문(37)의 경우 원숭이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탓에 속고 만다. 속는 행동은 속지 말아야겠다는 의식 하에서 일어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주의에 의해 일어나는 행동이므로 행동을 미리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속았다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행동은 「うっかり」와 더욱 잘 어울린다. 예문(38)의 경우 감기에 들린 것은 억제해야 할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억제할 수도 없는 행동이다. 감기에 걸리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발생시킬 수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예문(38)에서는 외부환경에 의해 감기에 걸렸다고 하기에 어려우며, 부주의로 인해 감기에 걸렸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つい」로 치환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つい」를 「うっかり」로 치환할 수 없는 경우는 예문(39)과 예문(40)을 통해 알 수 있다.

(39)七草をそろえたからどうだということもないのだが、好きなことにはつい(×うっかり)

時間を割いてしまう。(朝日新聞 99年)

(40)学校は休みなのかな。じゃましちゃ悪いと思いつつ、つい(×うっかり)聞いてしまっ

た。(朝日新聞 99年)

예문(39)에서 화자는 아무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억제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것이기에 억제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앞서 「つい」는 억제력의 결여 또는 외부의 상황에 의해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예문(39)의 경우는 억제력의 결여에 의해서 행동이 발생한 예이다. 다음으로 예문(40)의 경우도 억제력의 결여에 의해서 행동이 발생한 경우이다. 「じゃましちゃ悪いと思いつつ」라

는 부분은 「聞いてしまった」라는 행동이 억제력의 결여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 두 예문은 부주의에 의해서 행동이 일어났다고 보기 힘든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うっかり」와 「つい」의 치환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41)雑誌「諸君!」の2年間の連載をまとめた669ページの大著。カンバは重かったが1968年の参議員当選から95年の衆議員辞職までの政界体験が、石原流に生き生きと、つい(○うっかり)駅を乗り過ごしたことも。(朝日新聞 99年)

(42)因果をつなぐかぎの輪はただ一つ欠けても縁が切れる。この明白な事をわれわれはつい(○うっかり)忘れたりごまかしたりする事がある。(寺田寅彦『路傍の草』)

(43)すると、或王さまのところに、鹿のようにきれいな、そしてたかのように勇しい、年わかい王子がいました。この王子がその話を聞いて、私ならきつと眠らないで番をして見せる、一つ行ってためして来ようと思いました。

しかしお父さまの王さまは、王子がうっかり(○つい)眠りでもしたらたいへんですから、いやいやそれはいけないと言って、どうしてもおゆるしになりませんでした。(鈴木三重吉『ぶくぶく長々火の目小僧』)

예문(41)은 잡지의 내용이 너무 생생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동안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는 내용이다. 「うっかり」를 사용할 경우, 잡지에 빠져버린 상태에서 주의력을 잃어 내릴 역을 지나쳐버린 경우가 된다. 그러나 「つい」를 사용할 경우 내릴 역을 지나쳐버린 이유는, 잡지가 너무 재미있어 읽는 것을 그만두고 싶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잡지 읽는 것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억제력의 결여라고 보기보다는 「잡지의 재미」라

고 하는 자극에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예문(42)은 인과를 맺고 있는 굴레가 단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인연이 끊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うっかり」 또는 「つい」를 사용할 수 있다. 「うっかり」를 사용할 경우는 주의하지 않아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내용이 된다. 「つい」를 사용할 경우에는 예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잊어버리게 되거나, 다른 외부의 상황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예문(43)에서 왕자는 「私ならきっと眠らないで番をして見せる、一つ行ってためして来よう」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잠들어버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예문에서 「つい」를 써도 무방한 것은 왕자가 잠이라는 생리적 현상을 이기려고 하다가 잠이 든 것을 억제력 결여에 의해 발생한 사건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うっかり」와 「つい」의 치환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동의 원인이 주의력 부족에 있는지, 아니면 억제력 부족이나 외부의 상황에 있는지의 판단이 확실치 않은 문에서 치환이 가능했다.

2.2. 「うっかり」와 「思わず」에 대한 의미와 사용영역

「うっかり」와 「思わず」는 「つい」와 「うっかり」의 관계, 또는 「つい」와 「思わず」의 관계에 비해 유사점이 적은 편이다. 우선 아래의 「うっかり」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44)お湯にしばらくつけた後、なるべく自然な状態になる姿勢にして放置するといいでしょう。ドライヤーは、うっかり(×思わず)近づけ過ぎると髪が溶けることがあるので、ご注意を。(朝日新聞 99年)

(45)十五年前、徒歩でしか行けない奥鬼怒温泉郷に入ったがきっかけで、温泉巡りの数をこなす「数泉（かずせん）」にのめり込んだ。…(中略)…年間五百湯に入った年もあった。自然ゆうでの温泉を探すうちに、うっかり(×思わず)ゆう出口の近く足を踏み込み、大やけどで四十日入院したこともある。(朝日新聞 99年)

(46)その日の正午頃、二階の中程に住んでる人の室から、火が出ました。アイロンをうっかり(×思わず)つけっ放しにして、買い物に出たあと、過熱のために畳をこがし、襖にも火がついたらしいとのことでした。発見された時は、もう窓から濛々と黒煙が出ていました。(豊島与志雄『靈感』)

앞서서 거듭 언급한 바와 같이 「うっかり」는 부주의에 의한 행동에 대해 사용되는 어휘이며, 그 행동은 마이너스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한편 「思わず」는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행동에 대해 사용되는 어휘로, 그로 인해 발생한 행동에 대해서는 플러스마이너스의 이미지가 없는 중립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위의 예문(44)에서 드라이어기를 너무 가까이 갖다 대는 행동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드라이어를 가까이 대는 행동을 했을 경우 「髪が溶ける」라는 마이너스 이미지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더욱이 예문(44)에서는 중립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思わず」로 치환이 힘든 것이다. 예문(45)에서도 「うっかり」를 「思わず」로 치환할 수 없는 이유는 예문(44)에서 치환할 수 없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이다. 조심하지 않고 「ゆう出口の近く足を踏み込む」라는 행동을 하여, 그 결과 「大やけどで四十日入院した」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결과를 초래했다. 예문(46)에서 화재의 원인은 깜빡하고 다리미를 켜둔 채로 나갔기 때문이다. 이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또한 발생한

사건이 마이너스 이미지를 띠고 있으므로 중립적인 이미지를 띠는 「思わず」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세 예문 모두에서 행동을 발생하게 하는 요인으로써 <자극>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음으로 「思わず」만 사용가능한 경우의 예를 보자.

(47)手術後、一昼夜ぶりに眼帯を取りますと、ぱっと光が見えて、周りのものが鮮明に見えるのではありませんか。この時うれしさ、喜び、思わず(×うっかり)「先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手を合わせて拝みました。(朝日新聞 99年)

(48)枯れたチガヤが一面を覆い尽くしたこの田に、一步足を踏み入れたときだった。二、三メートル先のチガヤがガサゴソ音を立てて揺れた。緊張し、思わず(×うっかり)身構えてしまった。(朝日新聞 99年)

(49)或る晩、台所に大きな物音がした。妻は驚いて飛び起きて駆け下りて行った。いつもよりはげしい物音に私も思わず(×うっかり)聴耳を立てた。(島木健作『黒猫』)

예문(47)에서 「思わず」만이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자극으로 인해서 행동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예문(47)에서의 자극은 「うれしさ」와 「喜び」에 해당한다. 예문(48)에서의 자극은 「緊張」에 해당한다. 한편 예문(49)에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평소 때와는 다른 큰 소리이다. 「うっかり」를 사용할 경우 행동의 원인은 부주의, 즉 실수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의 세 예문의 경우 자극과 반응인 행동 간의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うっかり」로의 치환이 불가능한 것이다.

한 문장에서 「思わず」와 「うっかり」의 사용이 둘 다 가능한 경우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50) 「八十歳近いのにこの元気」という鶴瓶に「年齢のことは言うな」と怒って見せ、うっかり(○思わず) 「一度芝居を一緒にしたかった」と話すと、さかさず「私は死んでへん。」…(後略)(朝日新聞 99年)

예문(50)에서 두 어휘가 모두 쓰일 수 있는 이유도 역시 행동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うっかり」를 사용했을 경우는 「一度芝居を一緒にしたかった」라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할 부주의한 행동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思わず」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一度芝居を一緒にしたかった」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鶴瓶가 「年齢のことは言うな」라고 화낸 것에 대한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2.3. 「つい」와 「思わず」에 대한 의미와 사용영역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つい」와 「思わず」의 유의관계에 대한 고찰이다. 우선 「つい」만 사용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1) ごちそうをたべ終ってから、シンドバッドはヒンドバッドの方を向いて、さっき、まどの外で、何を言っていたのか、と聞きました。
ヒンドバッドは、大そうはずかしくなって、思わずうなだれてしまいました。そして、
「だんなさま、ごめんください。あの時は、大へんくたびれていたものですから、
つい(×思わず)、ばかげたことを言って、失礼いたしました。どうぞ、お気におかけくださいませんように。」と、言いました。(菊池寛『アラビヤナイト 四、船乗シンドバッド』)

(52)年を取れば体は衰える。頭では分かったつもりでも、生活の実感を、つい(×思わず) 自分の感覚で測ってしまっている。(朝日新聞 99年)

(53)幼時から植え付けられた「男らしさ」に縛られ、悲しみをうまく表現できない、つい(×思わず) 暴力的になってしまうなど、感情を上手に表現できない男性を対象に、豊かな感情表現を学ぶ集いが開かれる。(朝日新聞 99年)

앞서 각 어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볼 때도 언급했듯이 「つい」는 외부의 상황 또는 억제력의 결여에 의해서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하였다. 예문(51)은 억제력 결여에 의해 「ばかげたことを言って」라는 행동이 발생하게 된 경우이다. 피곤에 지친 나머지 자신의 의지를 다스릴 힘을 잃은 것이다. 예문(52)은 억제력 결여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 「頭では分かったつもりでも」라는 부분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생각과 생활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유감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예문(53)도 슬퍼졌을 때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은 어떠한 외부의 자극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자리잡아온 폭력성을 한순간에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은 「思わず」를 「つい」로 치환할 수 없는 경우이다.

(54)その途端、一目散に駆け出すではありませんか。脚力がすっかり衰えた老犬の走るより引きずられる状態に思わず(×つい)、「走らないで!」と叫んだのですが、無視して走り続けます。(朝日新聞 99年)

(55)連覇を達成した瞬間、会場で思わず(×つい)涙ぐんでしまいました。(朝日新聞 99年)

(56)上垣猛裁判長は「会社員は男性から予期せぬ攻撃を受け、思わず(×つい)左手を突き出したら男性の顔に当たった。男性は酔っていたため転倒したが、

会社員が手を出したのは一回だけで力も強くなった」と述べた。(朝日新聞 99年)

세 개의 예문에서 발생하는 행동은 모두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의한 것이다. 예문(54)의 경우 다리에 힘이 풀린 늙은 개의 모습은 화자가 「走らないで！」라고 말하게 하는 자극이 된다. 예문(55)에서는 연패의 기쁨이, 예문(56)에서는 공격이 행동을 발생시키는 자극이 되는 것이다. 「つい」로 치환했을 경우 예문에서 「走らないで！」라고 말을 하거나, 눈물을 흘린다거나, 손을 내미는 것은 모두 억제해야 할 행동이 된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이들은 억제해야 할 행동으로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위의 세 예문은 모두 순수하게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つい」와 「思わず」가 서로 치환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7)友人は真剣な顔付で私に詰めよった。私はすこし恐くなって目を反した。そのとき向いの壁に、帆村が描いたらしく、猿と鸚鵡とが胴中のところで継ぎ合わされているペン画が尤もらしく掛けてあるのを発見した。私はその奇妙な恰好が可笑しくなって思わず(○つい) 吹きだしてしまった。(海野十三『猿鸚』)

(58)「本当? 本当に出てきたんですか」

このときのビエナの驚きのようは、真賀木が思わず(○つい) 抱きしめたくなるほど可愛かった。(朝日新聞 99年)

(59)「ハイ、チーズ」。ああ、苦手なこの瞬間。カメラを向けられると、つい(○思わず) 逃げ腰になる。(朝日新聞 99年)

「つい」가 사용될 수 있는 경우는 화자의 외부의 상황이 자극으로 주어지거나, 억제력의 결여에 의해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한편 「思わず」

가 사용되는 경우는 자극에 의해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즉, 「つい」와 「思わず」의 공통점은 자극에 의해서 행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행동의 원인이 같기 때문에 두 어휘 간에 치환 가능성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에 李沢態의 경우는 자극과 반응 간 시간의 길이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에 치환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김소영의 경우는 자극과 반응간의 시간관계 이외에 자극의 강약을 정하기 애매한 문의 경우에 치환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자극이 화자의 내부에서 기인했는가 외부에서 기인했는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치환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つい」의 경우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첫째로 억제력의 결여와, 둘째로 외부의 상황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예문(58)의 경우 행동을 일으키는 것은 비에나의 놀란 모습일 수도, 또는 평소 비에나에게 갖고 있었던 호의적인 심리상태 때문에 발생한 억제력의 결여일 수도 있다. 예문(59)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외부적 요인이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思わず」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다. 하지만 카메라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우선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면 「思わず」보다는 「つい」쪽을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2.4. 세 어휘의 공통된 사용영역

다음의 예시는 세 어휘의 치환이 모두 가능한 것들이다.

(60)書き手の書かなかったことは何か、うっかり(○つい/○思わず)書いてしまったことは何かを見つけ出すことも大事。(朝日新聞 99年)

(61)資源ゴミの段ボール箱は、折り畳んでひもをかけて出すことになっている。うっかり(○つい/○思わず)親指に力を入れて、けんしょうえんのあとが完全には治ってい

ないらしいことに気づき、しまった、と痛みの走ったところをなでておくのもたびたびのこと。(朝日新聞 99年)

(62)一度大阪の町々の、こうした史蹟と、史話とを書いて、保存法と、紹介法とを考えては何うだろう。その位の愛市的観念と、財力があっても、金儲けの邪魔にはなるまいと思うが——實際、私等、大阪育ちの、相当そういうことを心得ている者が、歩いていてもつい(○うっかり/○思わず)見逃してしまうことが多い。(直木三十五『大阪を歩く』)

세 어휘가 한 문장에서 치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세 어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비의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의 원인을 어느 쪽으로 파악해도 무리가 없는 예문들이다. 예문(60)의 경우 「書いてしまった」라는 행동은 부주의에 의한 것일 수도, 억제력 결여에 의하거나 화자의 외부 상황에 의한 것일 수도, 외부적 자극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예문(61)과 예문(62)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세 어휘와 문말표현

우선 세 어휘의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 공통점은 이들이 동작의 상태를 의미적으로 한정하는 정태부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うっかり」「つい」「思わず」 세 어휘는 동사만을 수식하며, 상태성을 나타내는 용언인 형용사는 수식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63)こんな経緯で、私の家にもラジオというものが、そなわったけれども、私は相かわらず、あちこち、あちこちなので、しみじみ聴取した事は、ほとんど無いのであ

る。たまに私の作品が放送せられる時でも、私は、うっかり聞きのがす。(太宰治『家庭の幸福』)

(64)私自身も救われたことがある。長男を学校へ送り出すときに、言わなくてもいい小言をつい言ってしまったと自己嫌悪に落ち込んでいたとき、ささくれだった私の心に運転手さんの笑顔と先生の声が、さっと染み込んできた。(朝日新聞 99年)

(65)そんな矢先でしたので、漂ってきた芳香に、臭覚が正常に戻ったことを実感し思
わず歓喜しました。(朝日新聞 99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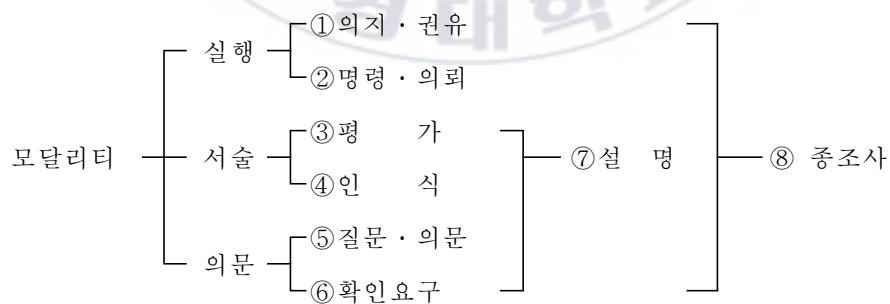
각각의 예문에 보이는 「うっかり」「つい」「思わず」가 수식하고 있는 것은 각각 「聞きのがす」「言う」「歓喜する」라는 동사이다.

(66) その結果、妙な音響を発する。鼻と口を抑えてくさめをするからである。鼻孔を出来るだけ細くしてくさめをするからである。うっかりきもちよくくさめをすると、そのあとで胸の中で血管が切れやしなかったかと、たいへん心配になり、くさってしまう。(海野十三『海野十三敗戦日記』)

예문(66)에서 밑줄 친 「うっかり」는 동사와 바로 접속하고 있지 않아 자칫 「きもちよく」라는 부분을 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태상이 아닌 의미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うっかり」가 수식하고 있는 것은 동사인 「くさめをする」이다.

두 번째 공통점은 「うっかり」「つい」「思わず」가 모달리티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현재 일본에 있어서 모달리티에 관한 통일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정당한 입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모달리티에 대한 대표적인 입장을 대략 세 가지 정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仁田義雄와 益岡隆志¹⁹⁾는 모달리티를 명제의 대립개념으로써 화자의 심적 태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문의 의미가 크게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의 두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견해이다. 한편 奥田靖雄²⁰⁾는 모달리티를 화자의 입장과 결부시킬 수 있는 문의 대상적인 내용과 현실에 관계하는 것으로 화자가 현실에 대해 관여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宮崎和人는 모달리티란 언어활동의 기본단위로써의 문의 서술방식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며, 이것은 문 레벨의 기능적이며, 의미적 카테고리라고 하였다²¹⁾. 세 견해에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문의 구성요소로써의 일본어의 문이 명제와 모달리티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때, 모달리티를 화자의 판단이나 표현태도를 나타내는 요소로 보고 있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달리티란 현재에 있어서 화자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주관성이 언어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달리티는 대부분 문말에 위치하여 화자의 심적 상태를 나타내므로, 여기서는 모달리티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문말표현과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유의어간의 관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宮崎和人의 모달리티 체계를 참고하고자 한다.



19) 宮崎和人 外, 『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2002, p.2

20) 宮崎和人 外, 『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2002, p.5

21) 宮崎和人 外, 『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2002, p.8

우선 모달리티 체계에서 동작의 의지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실행의 모달리티라고 한다. 그리고 실행의 모달리티는 화자의 행동표명을 나타내는 의지나 권유의 모달리티와 청자에 대한 행위요구를 나타내는 명령이나 의뢰의 모달리티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로 서술의 모달리티란 어떠한 정보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이야기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관계하는 모달리티를 말한다. 이는 명제내용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내는 평가의 모달리티와, 명제내용에 대한 화자의 인식적 태도를 나타내는 인식의 모달리티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결여 또는 불안정함을 전제로 하고, 그 해소를 위한 의문의 모달리티는 의문문의 의미나 기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질문과 의문이라는 전통적인 분류와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확인요구의 모달리티로 나뉜다. 본장에서는 특히 「うっかり」「つい」「思わず」 세 어휘와 모달리티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실행과 서술의 모달리티에 초점을 맞추어, 각각 모달리티의 문말표현과 세 어휘간의 공기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권유의 모달리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문말표현이라면 동사의 의지형과 동사 사전형을 들 수 있다. 동사의 의지형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며, 청자를 행위자의 의도에 영합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권유의 의미로 확장시킬 수도 있는 표현이다. 동사 사전형은 기본적으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낸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화자가 행위자로서 동사가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낸다는 조건을 근거로 한다면 화자의 의지에 관계하는 전달적인 기능을 띠고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동사의 의지형과 동사 사전형은 「うっかり」「つい」「思わず」와 공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67)その後十七年の今日まで、僕はこの夜の光景をはっきりと覚えていて、忘れようと

しても忘る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ある。(国木田独歩『少年の悲哀』)

(68)私は私の流儀でやって行きます。(太宰治『返事』)

라는 문은 성립된다. 하지만

(69) * その後十七年の今日まで、僕はこの夜の光景をはっきりと覚えていて、(うっかり/つい/思わず)忘れようとしても忘る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ある。

(70) * 私は私の流儀で(うっかり/つい/思わず)やって行きます。

라는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 하나의 문에 있어서 비의도를 나타내는 「うっかり」「つい」「思わず」와 의지, 즉 의도성을 나타내는 의지형 「忘れよう」라는 말은 의미론적으로 공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지형은 전술한 것과 같이 권유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권유의 모달리티와도 공기할 수 없다.

또한 비의도를 나타내는 세 어휘는 명령의 모달리티와도 공기하지 않는다.

(71) 「さあ、お茶をおあがりなさい。」と云いながらかけろうの胴中にむんずと噛みつきました。(宮沢賢治『蜘蛛となめくじと狸』)

(72) * 「さあ、(うっかり/つい/思わず)お茶をおあがりなさい。」と云いながらかけろうの胴中にむんずと噛みつきました。(宮沢賢治『蜘蛛となめくじと狸』)

예문(71)는 「～なさい」를 사용한 완곡한 명령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명령표현은 화자의 의도하는 바를 청자에게 요구하는 표현으로, 이 또한 예문(72)와 같이 공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실

행의 모달리티를 나타내는 문말표현과 비의도를 나타내는 「うっかり」「つい」「思わず」는 모두 공기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에서와는 달리 세 어휘가 통어론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공기양상이 다른 경우도 있다. 첫 번째로 문말에 금지형이 쓰일 경우 아래의 예문(73)에서 보이는 것처럼 「うっかり」는 「つい」「思わず」와의 공기는 다른 양상을 띤다.

(73) 「な、辰ッ、さっきだんながいっしょに苦勞を分けてとおっしゃったから、兄がいに半分おめえにも分けてやるが、こういうのがだんなのおはこなんで、これまで、どのくれえおらあこの手で苦勞させられているかわからねえんだから、うっかり(×つい/×思わず)しておめえも化かされるなよ。いつだっても、このとおり、何をやぶからぼうにいいだすかわからねえのが、…(中略)…おめえまで誘い込まれて、ぼかんと口なんぞあけて見とれていたら、根こそぎ鼻毛を抜かれちまうぜ」(佐々木 味津三 『右門捕物帖 曲芸三人娘』)

예문(73)의 「うっかり」를 사용하고 있는 문의 문말에는 「～な」라고 하는 금지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의 「うっかり」는 「つい」「思わず」로 교체 할 수 없다. 의미론적 유의점과 상이점에 대해 고찰할 때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うっかり」는 부주의에 의한 동작을 한정해서 말하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를 피해야만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현이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예문(73)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정신을 놓고 있다가 혼나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다음은 「～てしまう」와의 공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김소영의 논문에서도 세 어휘와 「～てしまう」와의 결합도에 관한 조사가 있었는데 본고에서의 조사결과는 「うっかり」의 경우 12.8%(총 164개 예문 중 21개 예

문), 「つい」 39.8%(총 396개 예문 중 146개 예문), 「思わず」 13.5%(총 778개 예문 중 105개 예문)로 결과가 나왔다.

김소영의 조사 결과 「～てしまう」와의 결합도는 「つい」 > 「うっかり」 > 「思わず」의 순으로 결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고의 조사에서는 「つい」 > 「思わず」 > 「うっかり」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つい」와 「～てしまう」의 결합도가 다른 어휘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것은 공통적인 사실로 밝혀졌다. 「～てしまう」는 아래의 예문과 같이 어떠한 행동이나 사건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낸다.

(74)洗濯物を完全に乾かしてしまう。(朝日新聞 99年)

이 경우는 완료된 사건에 대해 특정 모달리티를 띠지 않는다. 단순히 완료의 의미만을 지닐 뿐이다.

(75)全く、余計なことを言ってしまった。(朝日新聞 99年)

그러나 예문(75)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되어 후회나 유감스러움 등의 마이너스적 모달리티를 나타낸다.

「つい」가 「～てしまう」와의 결합도가 가장 높은 이유는 「～てしまう」가 완료를 나타내는 동시에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주의력 부족에 의해 행동이 발생하는 「うっかり」나 자극에 거의 반사적으로 행동함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는 「思わず」는 발생한 행동에 대해 행동주체의 의지가 관여하는 정도가 약하다. 이는 후회나 유감을 나타내는 정도가 「つい」의 경우보다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비교적 결합도가 떨어진다고 여겨진다.

Ⅲ. 결 론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상당히 근접해 있다. 언어적인 면만 보더라도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사항이라든지, 어휘의 체계 등 많은 면에서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유의어 취급에 관한 문제이다. 그동안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일본어 학습 시에 언어와 언어 간의 의미 대응이 일대일관계라는 사고방식으로 사전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학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의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더라도 아직까지는 번역을 주로 하는 교수법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유의 관계에 있는 어휘간 유사점과 상이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학습자는 드물다.

본 연구는 이처럼 외국어 교육이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모하여 유의관계에 놓이게 된 어휘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학습자의 학습방식을 관찰해보았을 때 단순히 사전에만 의존하여 학습을 하게 되는 현실에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 중에서도 사용빈도는 높으나 다른 품사에 비해 비교적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정태부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정태부사 중에서도 비의도적 태도를 나타내는 「うっかり」「つい」「思わず」를 중심으로 의미론적 입장에서 어떠한 유사점과 상이점을 갖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うっかり」「つい」「思わず」세 어휘는 주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에 쓰이는 어휘라는 유사점을 갖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각각의 어휘의 의미를 살펴본바 「うっかり」는 주체의 부주의에 의해 행동이 발

생하고, 그 행동으로 인해 유감스러움을 느낄 때 쓰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반성을 암시한다는 점에서는 「うっかり」가 걸리는 술어의 형태와 함께 고려하여 생각해볼아야 한다. 즉 「～た」에 걸리는 경우 「うっかり」는 반성을 암시하지만 가정형의 서술에 걸리는 경우는 반성을 암시하지 않는다.

「つい」가 사용되는 경우, 벌어지는 행동의 원인을 <억제력의 결여>라고 보는 것은 행동주체의 내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일어난 행동은 억제해야 할만한 일을 억제하지 못했으므로 마이너스적 이미지를 갖는다. 한편 행동의 원인이 <외부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은 주체의 외부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행동은 반드시 마이너스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思わず」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주체의 의도 없이 행동이 이루어진 경우에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회적 경우의 행동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각의 유의관계를 살펴보았는데, 「うっかり」와 「つい」, 「うっかり」와 「思わず」의 치환은 행동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불분명한 문장에서 일어났다. 「つい」와 「思わず」는 두 어휘 모두 자극에 의해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쓰이지만, 자극이 화자의 내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외부에 맞추어져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치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3장에서는 각 어휘의 의미를 바탕으로 통어론적 입장에서의 공기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うっかり」 「つい」 「思わず」는 모두 금지의 모달리티를 갖는 문말표현과는 공기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명령이나 의지의 모달리티를 나타내는 문말표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うっかり」만이 공기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てしまう」와의 공기관계

에 있어서 「つい」가 「～てしまう」와의 결합도가 가장 높은데 이는 「つい」나 「～てしまう」가 완료를 나타내는 동시에 후회나 유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사점 또는 상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의어 혼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교사부터 유의어 사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며, 유사점이 많아 학습하기 쉬운 언어라 할지라도 어휘 선택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유의어간의 관계를 알기 이전에 그 유의어가 그 언어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등, 유의어가 지니고 있는 유사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어휘를 접했을 경우 어휘 하나하나의 의미만을 학습하기보다는 많은 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휘의 뉘앙스를 인식하여 적절한 어휘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庵功雄 外, 『初級を教える人のための日本語文法ハンドブック』, スリーエーネット
ワーク, 2002
- 国広哲弥 外, 『言葉の意味 3』, 平凡社選書, 1997
- 西川寿美 外, 『新 はじめての日本語教育 1 日本語教育の基礎知識』, ask,
2004
- 仁田義雄, 『副詞的表現の諸相』, くろしお出版, 2002
- 山田孝雄, 「副詞」, (『日本の言語学』 (第4巻文法Ⅱ)), 大修館書店, 1979
- 飛田良文・浅田秀子, 『現代擬声語擬態語用法事典』, 東京堂出版, 2004
- 飛田良文・浅田秀子, 『現代副詞用法事典』, 東京堂出版, 2004
- 松村明, 『大辞林』, 第2版, 三省堂, 1995
- 茅野直子 外, 『外国人のための日本語例文・問題シリーズ I 副詞』, 荒竹出
版社, 1995
- 宮崎和人 外, 『モダリティ』, くろしお出版, 2002
- 日本語教育学会 編, 『新版日本語教育辞典』, 大修館書店, 2005
- 初山洋介, 「文の意味と語の意味」 『日本語学』 5月号, 明治書院, 2005
- 森田良行, 『基礎日本語』, 角川書店, 1977
- 畠郁, 「副詞論の系譜」, (『副詞の意味と用法』 (日本語教育指導参考書19)), 国立国
語研究所, 1995
- 辻幸夫, 『認知言語学キーワード辞典』, 研究社, 2002
- 新村出, 『広辞苑』, 第5版, 岩波書店, 1998
- 김소영, 「つい、うっかり、思わず의 용법에 관한 고찰」, 신라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김지혜, 「「氣持」「氣分」의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李沢態, 「主体の意図にかかわる副詞（的機能を持つ表現）の意味研究」, 名古屋大学大学院国際文化研究科博士学位論文, 2003

손 건, 『일본어체계어휘』, 동양문고, 1994

【용례출전】

<http://www.aozora.gr.jp>

『CD HIASK 1999(朝日新聞記事データベース)』, 紀伊国屋書店, 1999

